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16호 [루게 제23268호] 주제 99 (2010)년 11월 12일 (금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 여러 나라 당 및 국가령도자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과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온 여러 나라 당 및 국가령도자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2비서 라울 카스트로 루스동지, 농 등 마인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아랍사회부총장 지역비서인 바사르 알 아사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쾰달리 싸이 나촌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탄 스테르나쿠가 대통령이며 팔레스티나해방조지 집행위원회 위원장인 마흐무드 아부스 팔레스티나인민혁명당 수반,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이슬람공화국 대통령, 아르만두 에밀리우 게부자 모잠비크해방전선당 위원장, 수단공화국 대통령인 오마르 하산 아흐마드 알 바쉬르 수단인민혁명당 위원

장, 아브엘라지즈 부베클라가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에게 답전을 보내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답전들에서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축원의 인사를 보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하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답전들에서 우리나라와 해당 나라 당 및 국가, 인민들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계속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하시었다.

한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과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축전을 보내여온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캄보자인민당 중앙위원회, 부르투갈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답전을 보내었다.

본사기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 호지명국가정치행정학원대표단이 선물을 올리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호지명국가정치행정학원대표단이 선물을 올리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올리는 선물을 웰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호지명국가정치행정학원

원장인 레 후응이아단장이 1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보도하였다.

2일 로씨야의 이따르-파스트린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은하수 《10월수령》 결속공연을 관람하시었다.

공연무대에는 합창 《백전백승 조선로동당》, 《잊지 못할 우리 수령님》, 남성 5중창과 합창 《주체철 제일이야》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출연자들이 사상에술성이 높은 훌륭한 음악회를 진행한데 대하여 치하하시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은하수관현악단의 작곡가, 예술인들이 앞으로 도 예술창조활동을 과감히 벌려 조선의 근대와 인민을 강성대국건설사업의 위대한 투쟁에 더 힘있게 불려일으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었다.

이날 제스프주제사상연구 및 구현소조와 백두산제스프조선친선협회 인터넷공동총회계 《조선-백두산》에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우루과이신문 《라 후엔두드》

10월 30일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호지명국가정치행정학원대표단을 보내시는 사진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과 당중앙군사위원회 성원들을 인솔하고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에 즈음하여 10월 26일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의 위대한 수령 모택동동지의 아들 모안영의 묘와 중국인민지원군 려사묘에 화환을 진정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애국가가 주악된 다음 화환진정목이 울리는 가운데 동행한 당과 군대의 책임일꾼들과 함께 모안영의 묘와 지원군렬사묘에 화환을 진정하시고 중국인민지원군 려사들을 추모하여 목상하시었다.

이제께서는 이어 모안영의 묘와 중국인민지원군 려사묘를 돌아보시었다.

이제께서는 지난 조선전선참전기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이 세운 위훈과 공적에 대하여 깊은 감회속에 가슴깊게 추억하시면서 지원군렬사들이 발휘한 고결한 희생정신과 전

투적우의는 조선인민의 가슴속에 깊이 남아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이제께서는 조선의 산과 들에는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이 흘린 피가 스며들어있고 그들의 고귀한 위훈과 넓이 깃들여있다고 하시면서 공동의 위업을 위해 생명을 바친 지원군렬사들의 묘를 잘 관리하여 그들의 빛나는 업적이 영원히 전해지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에 즈음하여 10월 26일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의 위대한 수령 모택동동지의 아들 모안영의 묘와 중국인민지원군 려사묘에 화환을 진정하시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은하수관현악단의 작곡가, 예술인들이 앞으로 도 예술창조활동을 과감히 벌려 조선의 근대와 인민을 강성대국건설사업의 위대한 투쟁에 더 힘있게 불려일으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었다.

이날 제스프주제사상연구 및 구현소조와 백두산제스프조선친선협회 인터넷공동총회계 《조선-백두산》에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우루과이신문 《라 후엔두드》

후계자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선전대의 예술창조사업과 공연활동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로씨야의 이따르-파스트린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중앙방송창설 65돐에 즈음하여 중앙방송위원회 종업원들의 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시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선군사상, 선군정치를 견조높이 구가하고있는 언론인들을 가지고있는것은 조선로동당의 자랑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이제께서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방송일꾼들은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옹위하고 강성대국건설사업에 떨쳐나선 조선의 근대와 인민을 적극 고무추동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에 즈음하여 10월 26일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의 위대한 수령 모택동동지의 아들 모안영의 묘와 중국인민지원군 려사묘에 화환을 진정하시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은하수관현악단의 작곡가, 예술인들이 앞으로 도 예술창조활동을 과감히 벌려 조선의 근대와 인민을 강성대국건설사업의 위대한 투쟁에 더 힘있게 불려일으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었다.

이날 제스프주제사상연구 및 구현소조와 백두산제스프조선친선협회 인터넷공동총회계 《조선-백두산》에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우루과이신문 《라 후엔두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에 즈음하여 10월 26일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의 위대한 수령 모택동동지의 아들 모안영의 묘와 중국인민지원군 려사묘에 화환을 진정하시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은하수관현악단의 작곡가, 예술인들이 앞으로 도 예술창조활동을 과감히 벌려 조선의 근대와 인민을 강성대국건설사업의 위대한 투쟁에 더 힘있게 불려일으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었다.

이날 제스프주제사상연구 및 구현소조와 백두산제스프조선친선협회 인터넷공동총회계 《조선-백두산》에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우루과이신문 《라 후엔두드》

#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투지를 안고 모든 전선에서 일대 혁신을

## 총돌격전으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사상교양사업

평양시안의 당조직들에서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강위력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 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영애에 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김정일동지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당을 강화하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는데서 기틀과 뼈대를 틀어쥐고나가고있습니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아베당 조직들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을 선군의 기치밑에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 위업을 빛나는 승리에 이끌어나가는 불멸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불멸의 업적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진행하고있다.

그러하여 당창건 65돐을 승리의 대추진으로 빛내인

평양시안의 당조직들에서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강위력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 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영애에 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김정일동지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당을 강화하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는데서 기틀과 뼈대를 틀어쥐고나가고있습니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아베당 조직들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을 선군의 기치밑에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 위업을 빛나는 승리에 이끌어나가는 불멸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불멸의 업적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진행하고있다.

그러하여 당창건 65돐을 승리의 대추진으로 빛내인

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깊은 감명을 안겨주고있다. 그리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 땅에 이룩한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과 주체공업의 위력을 떨치며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는 경이적인 사업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당의 혁명적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라는것을 더욱 깊이 체득하고 혁명적투쟁에 분발해나서고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당창건 65돐을 승리의 대추진으로 빛내인 자랑안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올해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한 총돌격전에 과감히 떨쳐나서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도 방법있게 전개되고있다.

장동지구관할관할기업소, 아베관할관할과 시안의 경공업공장들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는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두고 일꾼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

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넘쳐 수행함으로써 당창건 65돐을 승리의 대추진으로 빛나게 장식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이 단위의 당조직들에서는 일꾼들이 현장에 내려가 제각각의 문제들을 적극 풀어나가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주동전선을 담당하는 높은 긍지와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대고조의 불길은 더 세차게 지펴올리게 하고있다.

지금 평양시 주변농촌들에서는 올해농사를 제때에 결속하기 위한 전투가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일꾼들이 주변농촌들에 내려가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책임성을 높여주기 위한 정치사업을 벌리고 있는 한편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여 올해농사를 잘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짜고두고 진행하도록 고무추동하고있다.

특파기자 최재남

로 공사속도를 2, 5배로 높여나갔다. 또한 자갈과 모래, 막들을 자체의 힘으로 생산보장하였고 많은 량의 진흙도 채취하여 언덕다짐을 질적으로 진행하고있다.

부령발전소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공사를 함께 책임진 립장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갔다.

청진항만건설사업소를 비롯 한 시안의 공장, 기업소들은 물론 무산철산연합기업소와 함경북도림업관리국을 비롯한 도안의 여러 단위들에서도 공사를 힘있게 도모하였다.

특히 청진수지관할구역의 일꾼들이 공사현장에 자주 나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중요건설사업에 제때에 보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물물이연제가 훌륭히 완공된 부령4호발전소에서 전력생산의 동음이 더욱 울리고있다.

특파기자 리성호

## 청진시에서

부령4호발전소 물물이연제 완공

청진시에서 부령4호발전소 물물이연제를 훌륭히 건설하였다. 물물이연제의 건설로 부령4호발전소의 전력생산을 2배로 늘일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전기문제부터 풀어야 석탄도 나고 철과 기계도 나고 비료도 나고 기름도 나고 철도수송로도 풀리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나고, 기업소들이 잘 돌아가고 나라의 전반적경제가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부령발전소의 전력생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전력생산을 늘일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확히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고 청진시에서는 부령4호발전소 물물이연제 공사를 힘있게 벌릴 데대한 목표를 내세

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려일으켰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공사지휘부에서는 연제건설의 질과 속도를 다같이 높이기 위한 작전을 주도세밀하게 하는것과 함께 전투조직과 지휘를 능동적으로 진행하였다. 지휘부의 일꾼들이 요구대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기술지도를 심화시켰다.

시청년동맹원들은 회춘철도차장조작대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을 본받아 10일이상 걸려야 할수 있다고 하던 가베수로공사를 단 3일만에 해제가 는 놀라운 위훈을 창조하였다.

이들은 총천연 기세로 기본본질공작업을 본태있게 진행하여 계획보다 앞당겨 끝냈다. 연제기초포크리프트에서도 청년동맹대원들은 앞선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리임을 중단없이 진행하였으므로 순산실황도 도입 등 여러가지 새로운 공법으

로 공사속도를 2, 5배로 높여나갔다. 또한 자갈과 모래, 막들을 자체의 힘으로 생산보장하였고 많은 량의 진흙도 채취하여 언덕다짐을 질적으로 진행하고있다.

부령발전소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공사를 함께 책임진 립장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갔다.

청진항만건설사업소를 비롯 한 시안의 공장, 기업소들은 물론 무산철산연합기업소와 함경북도림업관리국을 비롯한 도안의 여러 단위들에서도 공사를 힘있게 도모하였다.

특히 청진수지관할구역의 일꾼들이 공사현장에 자주 나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중요건설사업에 제때에 보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물물이연제가 훌륭히 완공된 부령4호발전소에서 전력생산의 동음이 더욱 울리고있다.

특파기자 리성호

로 공사속도를 2, 5배로 높여나갔다. 또한 자갈과 모래, 막들을 자체의 힘으로 생산보장하였고 많은 량의 진흙도 채취하여 언덕다짐을 질적으로 진행하고있다.

부령발전소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공사를 함께 책임진 립장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갔다.

청진항만건설사업소를 비롯 한 시안의 공장, 기업소들은 물론 무산철산연합기업소와 함경북도림업관리국을 비롯한 도안의 여러 단위들에서도 공사를 힘있게 도모하였다.

특히 청진수지관할구역의 일꾼들이 공사현장에 자주 나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중요건설사업에 제때에 보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물물이연제가 훌륭히 완공된 부령4호발전소에서 전력생산의 동음이 더욱 울리고있다.

특파기자 리성호

로 공사속도를 2, 5배로 높여나갔다. 또한 자갈과 모래, 막들을 자체의 힘으로 생산보장하였고 많은 량의 진흙도 채취하여 언덕다짐을 질적으로 진행하고있다.

부령발전소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공사를 함께 책임진 립장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갔다.

청진항만건설사업소를 비롯 한 시안의 공장, 기업소들은 물론 무산철산연합기업소와 함경북도림업관리국을 비롯한 도안의 여러 단위들에서도 공사를 힘있게 도모하였다.

특히 청진수지관할구역의 일꾼들이 공사현장에 자주 나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중요건설사업에 제때에 보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물물이연제가 훌륭히 완공된 부령4호발전소에서 전력생산의 동음이 더욱 울리고있다.

특파기자 리성호

## 중요 화물수송량 장성

철도 운수부문에서

철도 운수부문 일꾼들과 로동자들이 당대표자회정신을 받들고 수송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인민경제의 선봉부문을 지켜 선 책임감을 지니고 이들은 대고조전진속도에 박차를 가하며 혁명적양상을 일깨워 철도성적인 10월계획을 100, 6%로 완수하였으며 철광석과 선철, 강재, 비료 등 중요화물수송량을 지난해 같은 때보다 1, 2배로 늘였다.

일꾼들은 조직적사업을 힘있게 벌려 강성대국건설의 전투장투마대에 필요되는 화물을 더

많이, 더 빨리 실어나르기 위한 투쟁이 적극 전개되고 있다.

전국적인 화물수송량의 많은 몫을 맡고있는 화물철도국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국에서는 회춘발전소건설장들에 대한 집중수송을 짜고들어 세멘트와 대상설비들을 비롯한 중요물동들을 제때에 실어 나르고있다.

간척철도국 수송선사들은 집단체정신을 일깨워 기관차, 화차들의 실동률을 높임으로써 전 달계획을 101, 6%로 수행하였으며 이달에 들어와서도 통나무와 석탄 등의 수송에 힘을

집중하여 실적을 올리고있다.

화물역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화물수송을 합리적으로 하여 화차머무름시간을 줄인 함흥철도국, 청진철도국에서도 흉남비료연합기업소,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성진제강연합기업소에 대한 화물수송량을 장성시켰다.

철도성과 산하단위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강성대국건설대업이 벌어지는 현실실정의 요구에 맞게 5, 18수고정식대형 초파운동의 불길높이 철도수송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 적극 떨쳐나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창건 65돐을 승리의 대추진으로 뜻깊게 경축할 자랑과 긍지를 안고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 떨쳐나 짧은 기간에 여러 지역의 강하천바닥파기와 제방공사, 도로건설 및 보수정리, 거리와 마을꾸리기를 하여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국토관리사업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면을 일으킬 높은 목표를 제기한 각지 일꾼들은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을 면밀히 세우고 모든 근로자들이 뜨거운 조성에, 향토애로 가슴을 끓이며 고항산천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꾸리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동원되도록 하였다.

성을 보인 5, 7, 19구의 인민반원들이 도로확장과 혼성거기에서도 앞장섰다.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도로건설은 메일과 같이 공사장에 나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견고성과 문화성이 보장된 도로를 건설하도록 조직적 지휘를 짜고 꾸려나갔다. 도로확장공사를 맡은 군청년동맹원들은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라는 당의 주호를 심장에 새기고 질을 보장하는데 첫째는 힘을 넣었다.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반원들이 공사를 적극 도왔다. 운봉, 신봉, 배하협동농장에서선 호환기를 비롯한 기계설비들을 공사장에 우선적으로 보강해주고 성의있는 지원사업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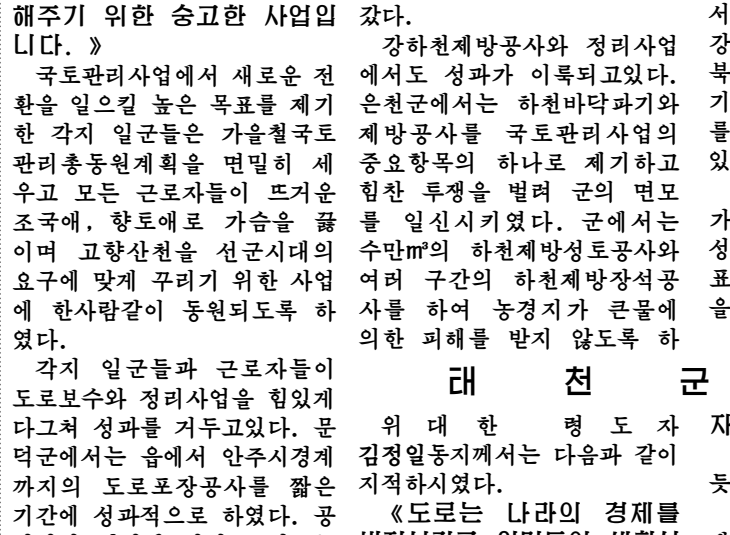
군일꾼들과 근로자들, 인민반원들의 열렬한 애국의 마음과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한달 남짓한 기간에 1단계 도로포장이 성취적으로 끝났다. 군일꾼들은 이 성과에 기초하여 겨울철을 특색있게 포강하고 경제성을 비롯한 도로시설물들을 문화적으로 만들어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진행하고있다.

새로 생겨난 도로도로는 군소재지의 면모를 한결 돋구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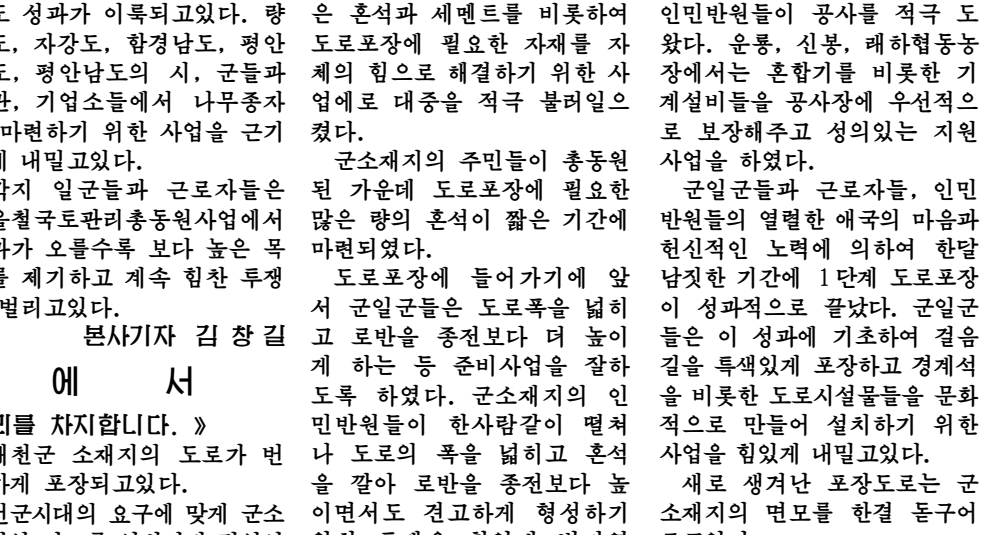
본사기자



인민생활에 적극 이바지할 한마음으로 유색건축생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단천제철소에서— 본사기자 김중훈 찍음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 적극 떨쳐나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창건 65돐을 승리의 대추진으로 뜻깊게 경축할 자랑과 긍지를 안고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 떨쳐나 짧은 기간에 여러 지역의 강하천바닥파기와 제방공사, 도로건설 및 보수정리, 거리와 마을꾸리기를 하여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국토관리사업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면을 일으킬 높은 목표를 제기한 각지 일꾼들은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을 면밀히 세우고 모든 근로자들이 뜨거운 조성에, 향토애로 가슴을 끓이며 고항산천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꾸리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동원되도록 하였다.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 적극 떨쳐나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창건 65돐을 승리의 대추진으로 뜻깊게 경축할 자랑과 긍지를 안고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 떨쳐나 짧은 기간에 여러 지역의 강하천바닥파기와 제방공사, 도로건설 및 보수정리, 거리와 마을꾸리기를 하여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국토관리사업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면을 일으킬 높은 목표를 제기한 각지 일꾼들은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을 면밀히 세우고 모든 근로자들이 뜨거운 조성에, 향토애로 가슴을 끓이며 고항산천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꾸리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동원되도록 하였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여러 나라에서 축전을 보내어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앞**  
캄보자민당 중앙위원회와 캄보자민당은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인민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조선인민은 김정일원수각하를 총비서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최근년간 나라의 건설과 발전을 위한 위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캄보자민당은 지난 시기 조선로동당이 이룩한 모든 성과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기회에 캄보자민당은 얼마전엔 진행된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일원수각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추대되신데 대하여 그에게 가장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과 단결, 협조의 뉴대가 계속 공고발전되기를 축원합니다.

**캄보자민당 중앙위원회**  
2010년 10월 1일 **프놈펜**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앞

**평양**  
축하하는 동지들  
우리는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과 공산주의자들에게 보르뚜갈공산당의 가장 뜨거운 인사를 보냅니다.  
보르뚜갈공산당은 일본의 강점으로부터 나라를 해방하고 조선인민에게 막대한 고통을 강요한 미제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하여 조선인민이 벌인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에 대하여 잊지 않고 있으며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적통일을 이룩하며 조선반도에서 외국군대와 핵무기를 철수시키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투쟁에 헌신성을 표시합니다.  
우리는 우리 두 당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계속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확인하면서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에게 커다란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보르뚜갈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국**  
2010년 10월 10일 **리스본**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앙골라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루안다

**앙골라공화국 대통령 에두아르두 두스 신프스각하**

나는 앙골라독립 35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할것과 아울러 나라의 번영을 위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99 (2010)년 11월 10일 **평양**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령도따라 불패의 사회주의 내 조국을 더욱 빛내여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만수대안덕에서— 김진명 적음

#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꽃피는 과일생산기지

인민에 대한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의 세계를 말해오는 이야기가 수없이 많다. 허나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 먹이려고 크나큰 로고를 바치신 백두산위인들의 사랑의 이야기는 오늘날도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수령님의 인민적 사랑을 버리지 마라. 그리고 그대도 따르라. 허나 허나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을 대를 이어 같이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얼마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나라의 과수업발전전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사리원과수농장을 전망있게 건설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일찍이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전쟁의 불길속에서 태어났고 우리 인민에게 펼쳐진 과일을 먹이려는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속에 발전의 길을 걸은 사리원과수농장!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던 얼마 안되던 주제39 (1950)년 8월 어느날이었다.

인민군인들에게 필승의 신성을 안겨주시며 불비출어지는 전진길을 이어나가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봉산을 지나 사리원을 가까이하시던 때였다. 차창밖으로 언뜻언뜻 지나가는 산밭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문득 운전사에게 차를 세우게 하시였다. 차에서 내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묘한 언덕들이 잇달아 뻗은 지형을 한참동안 바라보시였다.

그러시고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지형이 참 좋는데 여기에다 과수원을 조성하자고, 특히 이 주변은 포도원의 적지로도 될 수 있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중요한 시기에 과수원건설이라니... 그러나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승리한 조국의 레일을 내다보시고 이 땅위에 과수바다를 펼쳐칠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고 계시고 있었던것이다. 사리원과수농장의 력사는 이렇게 준엄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시작되였다.

전후복구건설이 한창이던 날 외국방문의 길에서 무연하게 펼쳐진 포도원을 보시면서 우리 수령님의 마음속에는 사리원과수농장이 소중히 자리잡고있었다.

그때 그 나라의 기후와 지형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알아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조국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충동이 좋은 수신통의 포도 나무모 수천그루를 비행기로 실어오도록 하시어 사리원과수농장에 보내주시는 사랑과 은정을 돌려주시였다.

이렇게 되어 사리원과수농장은 포도원이 생겨나게 되였다.

그후에도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이 과수농장을 찾으시어 포도원관리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사물을 비하면 다른 과일들도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하여 늘 마음쓰시는 분이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이다.

그이께서는 이 농장을 찾아실 때마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아버지수령님의 사랑이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기 위하여 힘껏 일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어느해인가는 포도수에서 지쳐야 할 원칙들도 가르쳐주시고 당분합량을 높이기 위한 방도도 알려주시였으며 또 어느해에는 긴장한 노력문제도 풀 방도도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나라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던 그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포도나무모를 보내주시면서 시험도 해보고

여러가지 과일생산기지를 더 늘일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립진호, 최영철동무들을 비롯한 농장의 기술자들도 과일생산에서 여러가지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과학기술적인 생산방법체계를 세워나가고있다.

농장에서는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기술이 자란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줄지어서는 최근년 정서를 자아내는 농장소재지에 정중히 건립된 영생림과 백두산위인들의 현지교시, 현지말씀판, 당의 구조들은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잘 보여주고있다.

이것을 찾는 사람들마다 감탄을 금치 못하며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진리가 있다.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그대로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우는 위대한 사랑의 길이라는것이다.

특파기자 김천일

# 선군혁명명령도의 나날에

## 혁명의 재보

어느해 전승절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부대의 군사임무수행정형을 료해하시며 관하의 여러 단위들과 지휘부까지 돌아보고나시였을 때였다.

그러시고는 부대지휘관들에게 동무들은 언제나 수령님의 기에 오중홀동지가 증대장으로 있던 7번째 4중대를 시범단위로 꾸리고 그 정형을 조선인민혁명군 대오안에 일반화하시였다고, 항일유격대지휘관들을

귀중한 가르치심

주제 89 (2000)년 2월 16일 인민군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갑나무중대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 내세워주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과 더불어 너정해안포대대에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러민 인민군지휘성원들은 뉘어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께서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오중홀동지가 증대장으로 있던 7번째 4중대를 시범단위로 꾸리고 그 정형을 조선인민혁명군 대오안에 일반화하시였다고, 항일유격대지휘관들을

생활문화에서도 본보기

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부대지휘부에 들어서기 전에 차를 멈춰서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유양상을 방불케 하는 푸른 숲 우거진 산, 저저 푸른 새들, 맑은 물 흘러내리는 시내가 푸른 아름다운 주변경치를 부감하시였다.

군인들의 불타는 정신세계를 그려보시는듯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윽고 부대지휘관들을 바라보시며 인민군대는 생활문화에서도 본보기라고, 여기는 먼 후날에 가서도 옛날도 남김없는 곳이라고, 그때에 가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인민군대는 싸움도 잘했지만 문화생활도 잘했다고 말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곳은 앞으로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이 향유하게 될 재부이라고, 지금은 비록 우리 인민들이 고난의 행군을 하고있지만 여기에 와서 허리머를 풀어놓고 웃고 떠들며 휴식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군인들의 숭고한 애국심에서 레일을 띠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러민 군인들은 그이께서 계시어 반드시 승리의 날이 앞당겨진다는 확신으로 가슴של레였다.

#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을 안아오는 위대한 장정

## 수력발전소건설장들에 새겨진 선군경장의 강행군자욱을 더듬어

올해 정초부터 매일과 같이 전해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 강행군소식이 천만의 가슴가슴을 세차게 두드러고있다.  
눈덮인 산밭, 흑탄의 눈보라를 거기 그 맞받아헤치신 력사의 그 나날과 더불어 삼복철강경군에 이어 오고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선군경장의 초강대강행군.  
그 격렬함을 후덜덜 되새겨보는 우리의 뇌리를 치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올해에 들어와 온 나라의 밑고 힘찬 수력발전소건설장들을 수차례나 찾으시였다.  
얼마전에도 그이께서는 최첨단 발전소건설장들을 세번째로 현지지도하시며 자신께서 지난 4월에 찾으시였던 한 인민군부대의 조업수공장을 돌아보시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몇개월사이 완공된 수천m에 달하는 물길굴뚝공사, 발전기실 건축공사...  
인민군인들의 정신력은 참으로 무궁무진하다고, 우리 군대의 이 위대한 힘을 당할자는 세상에 없다고 하시며 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그이의 자애로운 모습은 응당 할 일을 한 사랑하는 자식의 소행을 기록하여 주시기며 먼길도 단숨에 달려와 보살펴주는 친어머니의 모습 그대로였다.

어찌하여 우리 장군님 가보셔야 할 대상들도 많지만 최첨단소를 비롯한 수력발전소건설장들이 이런 소고한 사랑과 헌신의 자욱을 기록하듯 새기시는것인가.  
경제강국건설의 생명선인 전력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전기문제가 풀려야 설탕, 철과 기계도, 비료와 쌀도 나오며 철도수송문제도 풀린다. 시련속에서 다지고자하는 주체공간의 막강한 잠재력을 발휘하여 인민의 찬란한 리상을 전면적으로 실현하자면 전

력공업을 비약적으로 추켜세워야 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 강행군을 과감히 이어가시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력업은 현대산업의 기본동력이며 전력공업을 앞세우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입니다.»

비약의 폭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최첨단 발전소건설장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새해벽두의 현지지도강행군.  
그것은 전력공업을 하루빨리 추켜세워 경제강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고 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할 선군경장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금 온 세상에 알린 력사적장기였다.

그로부터 불과 며칠후 우리 장군님께서 완공단계에 들어선 메성강정2호수력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사나운 강추위도 마다 하지 않고 건설장을 돌아보시며 건설자들에게 세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였다.

지난 4월 어느날에도 최첨단 발전소건설장은 가슴벅찬 환희와 영광을 기록하듯 새기시는것인가.  
경제강국건설의 생명선인 전력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전기문제가 풀려야 설탕, 철과 기계도, 비료와 쌀도 나오며 철도수송문제도 풀린다. 시련속에서 다지고자하는 주체공간의 막강한 잠재력을 발휘하여 인민의 찬란한 리상을 전면적으로 실현하자면 전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산세협한 발전소건설장들에서 가지 마실것을 간절히 바랐건만 그이의 강행군자욱은 5월과 7월에도 줄기차게 이어졌다.  
백두산선군정전발전소, 아랑천발전소, 원산선군발전소건설장...  
찾으시어는 격전장을 방불케 하는 건설장들을 돌아보시며 건설자들에게 지칠줄 모르는 생기와 활력, 고통을 모르는 신심과 탄환에 넘쳐공사를 하루빨리 끝내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고 온갖 믿음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는 우리 장군님이다.

완공단계에 들어선 금야강군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활동소식은 또 얼마나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켰던가.  
삼복의 무더위를 헤치시며 건설장을 찾으시시라 우리 장군님! 얼마나 큰 로고를 바치시였으랴. 하지만 금야강상류에 거대한 인공댐이 쌓여져 대인공조가 형성된것이 기쁘시어 그이께서는 시종 만족해하시였다. 군인건설자들과 함께하든들이 창작한 그림들과 작품들도 보여주시고 건설과정에 꽃피는 미담들을 들으시며 투쟁과 노예속에 위훈을 새겨가는 그들의 참된 삶을 높이 치하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  
슬막히는 무더위속에서도 오랜 시간 건설장을 돌아보시며 건설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그이의 모습을 우리러민 우리 군대와 인민은 눈곱을 적시였다. 발전소건설의 증진자가 되시어 건설장들을 찾았으시시는 우리 장군님의 전설적강행군,  
그 위대한 헌신의 장정이 있어 온 나라의 수력발전소건설장마다에서 인민을 불태우는 창조와 혁신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지고있는것이며

위대한 속도가 바로 새로운 천리마 속도, 최첨속도라고 말씀하시였다.  
이 고귀한 부름은 우리 장군님의 믿음의 소고이고 새로운 총돌격 명령이었으며 그 높은 뜻은 천만의 가슴에 새겨 불을 지펴주었다.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지난해의 10월과 11월에도 수동발전소, 새로 건설된 금강강정2호수력발전소에 강행군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을 우리러민 천만군인이 심장으로 새긴 절의 진리가 있다.

완공된 수력발전소들과 창조와 변혁으로 들끓는 발전소건설장들을 총망무친하시는 위대한 선군경장의 강행군자욱을 따라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이 열리고 인민의 행복된 최환한 아성이 펼쳐지고 강성대국승리의 날이 앞당겨지고있는 것이다.

내 조국을 하루빨리 강성대국으로 일떠세우시려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헌신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불철주야의 강행군은 날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더 줄기차게, 더 맹렬하게 이어지고있다.

이 땅위에, 이 하늘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우리 장군님의 강행군자욱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달려마다에서, 건설장마다에서 눈부신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여야 한다.  
당창건 65돐을 전례없는 민족의 대장사, 승리의 대축전으로 빛내인 그에게, 그 기백을 안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올해에 수력발전소건설장들을 찾으시어 하신 현지말씀판들을 한사람같이 떨쳐나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총공격의 발걸음소리를 위대한 진감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행군자욱에 전진의 보폭을 맞추는 천만군인의 정신력이 위대하기에 머지않아 이 땅에서는 강성대국승리의 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질것이다.  
본사기자 김성남











# 인민의 봉사자 된 영예와 행복 끝없어라

## 동천호식당 지배인 리춘영동무

마가을인 이 계절에도 수도의 명산 대성산은 문화경쟁의 한해를 즐기려고 찾아온 사람들로 흥성하고 있었다. 중앙동물원과 중앙식물원, 대성산유원지를 지나 끝없이 흐르는 사람들의 물결속에 빠져 걸면 우리는 산속의 호수 동천호 기슭에서 한복의 그림같은 봉사자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대성산유원지와 더불어 온 나라에 소문난 동천호식당이었다.

즐거워 대성산유원지를 바로 여기서 끝이 난다면 앞서거니 뒤서거나 식당에 들어선 손님들은 저마다 음식기호에 따라 대동강맥주며 국수와 빵, 갖가지 요리들을 봉사받기 시작하였다.

그런 그들을 기쁨속에 바라보면 우리는 작업복차림의 한 녀인이 분가에서 조용히 미소를 짓고있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그가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열매진 선진시대 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동천호식당 지배인 리춘영동무였다.

겨울철봉사에 이용할 남새들을 자동차에 가득 싣고 금방 돌아온 그는 이젠 좀 쉬라고 하는 종업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손님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피곤이 다 풀리는 것 같아요. 나한테 이보다 더 좋은 휴식이 없어요.》

봉사자의 진정이 우리의 가슴을 울려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일꾼들에게 있어서 보람 있는 생활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면서 인민의 사랑과 믿음속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리춘영동무는 금양봉사부

에서 30년간 일해왔다. 그날과 달들은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결세의 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기고 받들어온 나날이었다.

고난과 시련이 겹쳐들던 10여년전 어느 동천호의 물 위에는 그 기슭을 오르내리는 리춘영동무의 모습이 비껴났다. 시인의 어느 한 시당 책임자로 일하다가 동천호식당 지배인으로 임명받은 그는 자기 단위에 새겨진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크나큰 격정으로 가슴살찌고있었다.

1970년대에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꾸려진 대성산유원지를 돌아오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이 식당에 들리시어 친히 《동천호식당》이라고 이름지어주시었다.

이날 수령님께서 봉사와 관련하여 말씀하시면서 대성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들의 각이한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게 봉사자료를 다양하게 할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자신께서는 낮이나 밤이나 인민을 위한 현저지도의 길에 계신 모든 인민들의 문화휴식생활의 세부적문제에 대해서까지 깊은 관심을 돌려주신 뜨거운 어버이사랑에 눈물을 적시며 리춘영동무는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인민의 기쁨과 영광을 더해주는 참된 봉사자로 한생을 살리라 굳게 마음다지었다.

리춘영동무가 처음부터 힘있게 밀고나간것은 로리사들의 기술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었다. 매일 봉사가 끝나면 한두시간씩 어김없이 진행된 기술학습의 강사로 출연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총질성도 애국도 다름아닌 실력에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우시다.》

실천을 통하여 로리기술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이악하게 노력하는 사람도 바로 그였다.

이미 높은 기술급수를 지니고있는 그것지만 잘 모르는 로리방법들에 대하여서는 누구에게나 허물없이 물으며 익혀나갔다. 그런 그를 보고 한 로리사가 지배인동지는 그 많은 로리법들을 다 배울 작정인가고 물은적이 있었다.

그러자 리춘영동무는 그것이 하나의 목표라고, 나뿐만 아니라 동무들도 그 어떤 로리기술에도 막힘이 없이 준비되어야 인민들에 대한 봉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대답하는것이였다.

이런 드림같은 자세와 림장으로 종업원들을 이끌어 식당의 모든 로리사들이 높은 기술능수준을 지니도록 하였으며 금양봉사의 질을 더욱 높여나갔다.

해마다 진행되는 전국적인 로리추진대회에서 동천호식당의 이름이 언제나 영예의 금메달과 함께 빛나게 된것도 바로 그의 열정은 열정과 노력의 결과이다.

우리와 만난 공훈로리사 리순애동무는 지배인이 당쟁책결

사판결의 정성과 높은 창조력으로 우리 식의 음식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글라글 노력한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리춘영동무가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주선으로 틀어쥐고 나간것은 민족로리를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뜻을 관철하는 사업이었다. 하여 식당에서는 종업원대중이 발동되어 수시가지의 민족로리를 찾아내고 봉사에 리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지배인은 만족하지 않았다. 새로운 창조가 없이 어떻게 발전할수 있었는가. 민족음식문화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것도 선진시대 금양봉사일꾼들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라고 하면서 로리사들과 힘을 합쳐 새로운 로리법을 창조하기 위해 사색과 탐구를 이어나갔다. 그 과정에 쉼을 청하여여 분량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완성함으로써 국가발명권을 받는 영예를 지니게 되었다.

《동무들, 주먹보마루에 계시는 김정숙어머님을 찾아가세요.》

기쁨 때나 힘들 때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을 마음속에서 그리며 견디고 그 길을 종업원모두와 함께 걸어온 그는 자기의 진정을 리놓았다.

백두의 설한공중에서도 자신께서 당하시는 추위와 배고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동지들의 기쁨과 웃음을 위해 모든것을 장그러 버리신 김정숙어머님, 어머님처럼 살며 일하는 길에 봉사자의 참된 삶과 행복이 있다고

세 세기에 들어와 날마다 더해만지는 인민에 대한 어버이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에 접할 때마다 리춘영동무는 인민의 봉사자로서 할바를 다하고있는가에 대하여 심각히 돌이켜보곤 하였다. 그런데 제일 마음에 걸리는것은 나치만한 식당건물이었다. 수려한 대성산의 풍지에 어울리게 식당을 번듯하게 개건할 결심을 품은 그는 종업원들과 함께 종전전들의 5배나 되는 2층건물과 야외식당건물에 떨쳐나섰다.

낮에는 림시 꾸러놓은 야외식당에서 봉사를 진행하고 밤에는 건물을 하느라고 누구나 일에 몰려 들어가던 어느날 새벽, 기초과기작업을 끝내고 폭압에 들었던 종업원들은 결에서 물든 땀겨울은 싱그러운 향기에 잠을 깨었다. 눈을 뜨니 새벽이슬에 온몸이 들쭉임을 느끼는 지배인이 싱싱한 들꽃무늬를 한아름 안고 서있었다.

《동무들, 주먹보마루에 계시는 김정숙어머님을 찾아가세요.》

기쁨 때나 힘들 때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을 마음속에서 그리며 견디고 그 길을 종업원모두와 함께 걸어온 그는 자기의 진정을 리놓았다.

백두의 설한공중에서도 자신께서 당하시는 추위와 배고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동지들의 기쁨과 웃음을 위해 모든것을 장그러 버리신 김정숙어머님, 어머님처럼 살며 일하는 길에 봉사자의 참된 삶과 행복이 있다고

정철히 이야기하던 그의 모습도 종업원들은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봉사자의 영예와 행복, 그것은 곧 창조이고 헌신이라는 숭고한 자각을 안고 리춘영동무는 지난 14년간 봉사가지를 일신하고 현대적인 주방설비를 그 흔하게 갖추는 등 금양봉사에 필요한 수많은 일감들을 스스로 찾아내었으며 그 수행으로 종업원들을 함께 기쁨어하였다.

그날날속에서 식당은 누가와 보아도 감탄할만큼 훌륭하게 꾸러졌으며 태양열온실과 부엌기기를 비롯하여 많은 량의 부식물을 자체로 해결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로 튼튼히 갖추어졌다.

인민의 봉사자 된 긍지를 안고 자기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생활을 아끼지 않는 그의 고결한 품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다.

햇볕에 어느날 리춘영동무는 식당을 찾았던 손님들이 감동속에 남긴 글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발자취가 력력한 대성산유원지에서 마음껏 휴식을 하고 동천호식당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이 깃든 대동강맥주를 비롯한 갖가지 음식들을 봉사하면서 우리 제도의 고마움을 더욱 가슴뜨겁게 느꼈다는 한 건정령병이 이렇게 써놓았다.

《당신은 이 식당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이 깃든 대동강맥주를 비롯한 갖가지 음식들을 봉사하면서 우리 제도의 고마움을 더욱 가슴뜨겁게 느꼈다는 한 건정령병이 이렇게 써놓았다.》

(우리의 봉사활동 하나에서 도 사람들은 당의 은정을 느끼며 세월의 흐름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회주의본래, 우리 제도의 참모습을 보고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한 그는 봉사활동을 더욱 개선할 방도를 탐구하였다.

그런 속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만 봉사할것이 아니라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모범적인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봉사와 건정령병, 영예군인들에 대한 봉사 등을 계획적으로 조직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의 이 제는 종업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하여 식당에서는 지난 기간 유원지를 찾는 손님들에 대한 봉사에 힘을 넣는 것과 함께 건정령병, 영예군인들과 산신관광관객들을 비롯하여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

색있는 봉사활동을 잘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금양봉사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당의 은정이 인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가닿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결세의 위인들의 숭고한 인민경제계획을 심장에 지니고 인민들을 위한 봉사사업에 온몸을 바친 리춘영동무는 종업원들을 친절유치하며 아끼고 사랑하며 봉사활동과정에 알게 된 영예군인들의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살뜰히 돌보아주었다. 그밖에 도 금수산기념궁전과 백두산지주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건설에 대한 지원사업과 인민군대원호사업도 근기있게 진행하였다.

인민에 대한 헌신적봉무정신을 지니고 참된 봉사자로 한생을 빛내여온 리춘영동무.

그는 이 시각도 바치는것이 영예이고 행복이라는 인생의 진리를 세 세대 종업원들의 심장속에 새겨주며 인민의 참된 봉사자의 한걸음 이어가고 있다.

글 및 사진 봉사기자 허명숙



리춘영동무 (가운데)

### 개성시 해선헌동농장

얼마전 우리는 개성시 해선헌동농장 마을을 찾았다.

우리를 반겨맞은 관리위원회의 한 일꾼은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민족애가 깃든 왕건왕릉이 자리잡고있는 마을을 해선헌이라고 부르게 된것은 전후 원환의 38°선이 해례된 곳이라는데로 부러워했다고 하였다.

뜻깊은 당창건 65돐을 맞아 올해 가을 마을에 경사가 있다. 당의 은정속에 새로 일떠선 회한한 120동의 새 살림집들에 농장원들이 새집들이를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새로 짓는 살림집들은 현대적미감에 맞고 인민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지어주어야 한다.》

마을은 볼수록 회한하였다. 마을어구에서부터 우리와 동행한 김일동무는 정말 골짜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우리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어버이사랑속에 이렇듯 평범한 농장원들이 회한하게

꾸러진 새 집에서 부러운것없이 생활하게 되었다고 격정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김일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마정숙로인의 집을 찾았다.

로인은 우리에게 살림방 문을 열어보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 이 고장에서 70평생을 살면서 당의 은덕을 눈물겹게 체험하였습니. 전후 로동당의 정치이해 얼마나 행복한 생활을 누리며 살고있는지 새 세대는 다는 모를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훌륭한 살림집을 나라에서 돈 한푼 받지 않고 가져 주니 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가장자적 용물들과 생활필수품들이 갖추어진 살림방들과 부엌은 볼수록 회한하였다. 맑은 샘물이 흘러오는 수도들과 파란 불길을 뿜어올리는 메탄가스공로...

살림집의 구조는 농장원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되어있었다. 살림집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있는 부속건물들도 다 갖추어진 새 집처럼 보이는 5그루의 과일나무가 심어져있었다.

마리논은 우리에게 멀지 않아 이 나무들이 과일들이 달려서 손자, 손녀들이 누구보다 기뻐할것이라고 하면서 다음해에는 과일나무들을 더 심을 결심이라고 이야기하며 웃음을 지어보였다.

우리는 이번엔 새로 건설하

### 찾아서

었다는 리문화회관을 비롯한 여러 공공건물들에 둘러보았다. 어린이들의 행복의 노래소리가 넘쳐나는 유치원과 탁아소, 편의시설들...

제대군관인 제 작업반 농장원 최정남동무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이 분개연선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건설준비를 착실히 하고 살림집건설은 물론 건물의 외장재며 부엌, 세면장의 타일과 벽지에 이르기까지 일꾼들이 관심하지 않은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고 특히 시장책임일꾼이 건설을 힘껏 도와주었다고 하는것이였다.

그의 말을 듣고보니 짧은 기간에 살림집들을 건설한 일꾼들과 건설자들의 노력이 뜨겁게 깃들었는 120동에 달하는 1동1세대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의 모습이 더욱 멋들어지게 안겨왔다.

우리는 마을이 한눈에 바라 보이는 언덕우에 올랐다.

저녁노을이 붉게 비친 마을을 한복의 그림같았다. 후설향 어린기의 집에서 울려오르는 행복의 노래소리며 군대나간 아이들의 편지를 받고 기쁨에 넘쳐있던 최정남동무의 가정에 넘치던 웃음소리가 다시금 귀전에 정경되리라 우리는 후더운 가슴을 안고 농장마을을 떠났다.

특파기자

### 주체철용광로의 불길이 되어

#### 북부청년단광 일꾼들과 탄부들

경원지구관평면합기업소 북부청년단광의 제탄막장에 들어가면 이런 광장이 나타났었다. 《주체철용광로의 불길이 될 각오를 가지고 김철에 더 많은 선란을 보내자!》

김철제철원합기업소에 선란을 보장하는 북부청년단광의 일꾼들과 탄부들은 이런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며 올해 정초부터 광, 막장마다에서 선란생산을 위한 힘찬 무쟁을 벌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당은 수천척지하막장에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목숨까지 희생할수 있는 탄부들을 로동계급의 핵심부대, 나라의 보배로 굳게 믿고 끝없이 애고있으며 선란공헌부문의 로동계급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충공경전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해나갈것을 기대하고있습니다.》

올해 2월 초 초급일꾼과 함께 덕촌광으로 들어서는 지배인의 생각이 깊었다. 사실 1월 선란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탄광의 어느 광, 중대에서는 한복의 그림같았다. 후설향 어린기의 집에서 울려오르는 행복의 노래소리며 군대나간 아이들의 편지를 받고 기쁨에 넘쳐있던 최정남동무의 가정에 넘치던 웃음소리가 다시금 귀전에 정경되리라 우리는 후더운 가슴을 안고 농장마을을 떠났다.

특파기자

### 탄전이 자랑하는 처녀

#### 덕성 탄광 석충심동무

이 생겨도 그것을 안고 막장으로 찾아와 고부해주던 충심동무 탄부들은 《우리 충심이》라고 불렀다. 그러던 그가 운반공이 필것을 제기하고 이렇듯 첫 출근길에 온것이다. 그의 가슴에는 과연 어떤 결심이 자리잡고있는것인가.

석충심동무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전차길을 바라보았다. 탄광행차의 한 사람이었던 할아버지와 소문난 클진공이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어렸다.

우리 수령님께서 석탄은 《검은금》이라고 하시면서 탄부들을 나라의 운아들로 내세워주셨는데 그 은덕에 보답해야 한다고 하던 할아버지 탄부는 자기를 장그러 태워

야 할것이다.

초급당원위원회에서 지배인의 결심을 적극 지지하며 6광과 7광, 방사광과 덕촌광 등 모든 단위들에서 사회주의경쟁을 벌리는것과 함께 직관선동, 예술선동, 경쟁소세선동 등을 활발히 벌리며 막장마다 대고조의 열풍, 창조와 혁신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지도록 조직정지사업을 짜고들었다.

탄광은 불데가치마냥 끓어번졌다. 광, 막장들을 타고있는 일꾼들은 걸린 문제를 앞장서 풀어나가며 탄부들을 공격전으로 불리웠었다. 방사광의 경쟁을 비롯한 일꾼들은 막장에서 속보를 쉼없이 탄부들의 가슴속에 대비약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주었고 중대장, 부문당비서를 비롯한 초급일꾼들은 기쁨이 어린 탄부들을 따라가기도 자제로 작업기를 수리하는 방법, 호충높은 발파방법 등을 배워주며 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갔다.

사회주의경쟁으로 덕촌광에서는 물론 어느 광, 중대, 소대에서도 하루전투계획을 넘쳐 넘치고 탄출을 올렸다.

김철이 우리를 지켜본다. 하루 선란생산계획을 2배이상 하기 전에는 막장을 나설수

느 소대, 분대에서나 교대전에 막장밖에서 동발세우기모의 훈련을 조직행함으로써 제탄막도를 마음먹은대로 높이면서 교대마다 석탄생산을 비약적으로 높여나갈수 있었다.

정말 올해 대고조의 선봉에서 달리는 김철의 로동계급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시간을 쪼개가며 석탄산을 높이 쌓아가는 청년돌격대원들의 열의는 불같았다.

하기에 뜻하지 않게 불락되어 제탄막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도 그들은 김철을 생각하며 불락기간이 열릴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던것이다.

《동무들, 주체철용광로의 불길에 될 각오를 안고 달려나선 우리가 불락기간이 열릴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던것이다.》

소대장 최용철동무의 그 말에 1분대 돌격대원들은 주체철용광로의 불길이 될 의지를 굳게 다짐을 하였다. 그날 대용메루를 마련해가지고 막장에 들어간 그들은 대용메루를 설치하고 캐논을 석탄을 실어내기 위한 전투를 동시에 벌려나갔다.

그때만이 아니었다. 제탄속도에 비하여 동발을 세우는 속도가 미처 따라서지 못할 때였었다. 그들은 체제적지혜를 합쳐 가장 빠른 동발세우기방법을 찾아내고 그 숙련을 위하여 어

그를 잡아끌었다. 정속실동무 김철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특히 당원들이 혁명적대고조를 위한 투쟁에서 앞장서야 합니다.》

《당원의 영예를 지닌 동무를 축하해요!》

늘 엄격한 요구를 내세우고 결을결을 손잡아 이끌어 준 기쁨, 최용철동무에게 있어서 정속실동무는 로동의 보람을 얻게 해준 잊지 못할 당원이었다. 그는 최용철동무는 정속실동무의 공구한을 끌어주며 말하였다. 자기도 남보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사람으로 살것이다!...

무엇인가 세웠던듯 스텝을 내걸은 정속실동무는 다시 자기사이를 누벼나갔다. 지난해에 3년분 계획을 수행한 그에게 올해에 도 빛나는 로력적성물을 마련할 그의 불타는 열망이 천원만대에 수놓아져갔다. 하루일을 마치자 그는 자기의 기대들을 정성껏 담기 시작하였다. 방금 당조직에 작자 자기 기대를 실은공에 넘겨주고 자기는 그의 기대를 다루겠다고 제기했었던것이다. ...

그는 이렇게 10년을 살 생각을 깊어만났다. 많은 직기에 만부하의 동음을 안겨준 공구들을 보느라니 얼마전의 일이 되새겨졌다.

그날도 그는 기쁨이 어린 직공에게 실은 방법들을 배워주었고, 그때 직접 최용철동무가 기쁨에 넘쳐 달려오더니

### 호지명국가정치행정학원대표단

####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평양 11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레 유 응이 중앙당을 단장으로 하는 호지명국가정치행정학원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대표단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만경대일기부분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행방을 이룩하시고 조선을 빛내여주시었다.

호지명주석과 김일성주석께서는 월남과 조선사이의 친선관계를 마련하시어 강화발전시키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것을 축하한다.

대표단은 또한 김일성고급당학교와 당창건사적관, 국제친선관람관, 인민경제대학 등을 참관하였으며 국립교향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였다.

연회에는 공석용 외무성 부상, 한철 문화성 부상, 흥선

### 연회 마련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불스까공화국 대통령 브로니스와브 코보로프스키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과 불스까사이의 친선협조관계발전을 위하여 찬사를 들었다.

### 공동음악회

【평양 11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쇼팽 생일 200돐에 즈음한 공동음악회 11일 김원경평택 평양음악대학 음악당에서 진행되었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었다.

김원경평택 평양음악대학과 불스까의 연주자들이 출연한

### 조경철

【평양 11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쇼팽 생일 200돐에 즈음한 공동음악회 11일 김원경평택 평양음악대학 음악당에서 진행되었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었다.

김원경평택 평양음악대학과 불스까의 연주자들이 출연한

### 충렬새세대일군대표단 도착

【평양 11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사회주의조국을

### 위험의 밑바닥

【평양 11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독립절에 즈음하여 에드워드 베트루크 주조 불스까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대사관성원들이 음악회를 보았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었다.

김원경평택 평양음악대학과 불스까의 연주자들이 출연한

### 조향선

【평양 11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독립절에 즈음하여 에드워드 베트루크 주조 불스까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11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공석용 외무성 부상, 한철 문화성 부상, 흥선



호지명국가정치행정학원대표단 당창건사적관 참관



